

성신강림대축일

제1독서: 사도 2, 1-11
제2독서: I 고린 12, 3b-7, 12-13
복음: 요한 20, 19-23

숲 정 이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 있을 것이다” (요한 20, 23)

강론

소리

성령과 새로운 세상

흐느끼는 법정

이 사정 신부/금암성당 보좌

“한 오년동안 흥년이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사 지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농촌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합니다. 5년정도 흥년이 들어야 우리가 지은 농작물을 먹고사는 사람들이 농촌의 중요성을 조금은 알게 아닙니까?” “.....”

얼마전 농사를 짓던 어떤 분과의 짝막한 대화이다. 그분은 모내기철에 일손이 없어 많은 돈을 빚을 내어 값비싼 이앙기를 샀는데 고장이 나서 부속을 구입하려하니 그조차 몇십만원이나 되어 또다시 고치는 샀마저 빚을 내야했다는 말씀도 덧붙이신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협조자로서 파라과리또 성신을 오순절날 보내주심을 기억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는 성신강림대축일이다. 날로 각박해져가는 요즘의 우리나라 상황에서 오순절날 성신강림후 초대교회를 시작했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 모습은 가히 우러러 볼만 하다.

“그들은 한마음이 되어 날마다 열심히 성전에 모였으며 집집마다 돌아가며 같이 빵을 나누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함께 먹으며 하느님을 찬양하였다”(사도, 46).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입은 사람들이며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대로 당신의 영을 보내셨고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신자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처럼 살았다.

소득보다 소비가 정도를 넘어서는 과소비풍조, 가진 자들의 부동산투기, 수입개방, 지나친 외제선호사상이 만연되고 돈만이 최고라는 요즘의 세상에서 절실히 필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의 성령의 활동이 아닌가 한다. 성령은 생각이나 사상으로 이해될 수 없고 마음으로 부터 알아들어야 되듯 농촌의 현실에, 이땅의 억압받는 노동자와 농민, 소외된 수많은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마음으로 부터 다가서야 할 것이다.

성령은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베풀고자 하시며 그 은사에 따라 우리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길 원하신다. 그 새로운 세상이란 기도할줄 알며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줄줄 알며 나눔과 친교가 가득한 세상이다. 성신강림대축일에 우리 앞에 작용하시는 성령의 은사를 생각하고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드리자.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총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I고린12, 7).

법정은 온통 흐느끼는'소리로 가득찼다. 도무지 귀를 막아버린 법관 몇을 제외하고는.....

지난 5월 28일 오전 10시 평양 청년학생 축전에 참가했던 임 수경(수산나)양과 임양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에 갔던 문 규현(바오로) 신부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서울 고등법원 대법정에서 열렸다. 공개적으로는 문신부의 주장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지라 전주 교구 교구장 이 병호(빈첸시오)주교, 20여명의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이 새벽 6시 교구청을 출발했다. 과천 인터체인지에 다다랐을 때 누군가 “야, 호송차다” 하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어 고개를 돌리니 문신부와 임 수경양을 태운 호송 버스가 지나가고 있었다. 우리 차를 바짝 붙여 창을 두드리니 흰 수의의 문 신부가 활짝 웃고 있었다. 참으로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그러나 곧 우리는 헤어져야했고 이것 저것 많은 생각만이 가슴을 맴돌았다. 일이 잘 풀릴 것 같은 막연한 기대와 기도에 눈을 감았다.

그러나 이는 매우 순진한 꿈이었다. 결과는 냉엄했다. 원심 구형 대로 15년, 10년의 구형이 반복된 것이다. 그렇게 구형하는 검사를 미워해야 할지, 불쌍하다고 해야 할지.....

어떻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죄없는 사람-죄가 있다면 통일을 이루어야겠다는 열정 외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이, 그것도 동료 사제와 자매가 간첩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야하는 이 현실이 너무도 답답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교회의 현실이 더욱 답답하고..... 권

숲정이 산책



교회와 성령

그리스도교 하느님의 가장 큰 특징은 삼위일체(三位一體) 하느님이시라는 점이다. ‘셋이지만 하나이시고 하나이시면서 셋’이라는 이 계시는 우리 인간적 차원에서 알아 듣기란 거의 불가능 할 정도이다. 따라서 2000년 교회 역사상 많은 논쟁의 소재가 되었다. 이미 AD360년경 성령배격론자들(Pneumatoma-chen)이라 지칭되었던 마케도니아니즘과 아리아니즘의 이단이 발생하였고 그후 9C말에는 동방교회와 서방 교회가 분리되는 불씨를 안겨 주기도 하였다.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에서 성령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 라는 논의는 상당기간 동안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사변적 논의에 팔려들어 우리의 기본 신앙이 흔들릴 필요는 없다. 우리는 단지 교회로부터 가르쳐지는 진리대로 믿고 행동하기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다.

한때 ‘성령’ 하느님은 마치 개신교의 하느님 인양 소외된 분위기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교회 역시 한시도 성령에 대한 믿음을 간과하지 않았었다. 여전히 성령은 교회와 개인 신자들의 성화와 쇄신의 원천으로 믿어 온 것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교회와 성령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성자께서 성부께로부터 지상사명(地上使命)으로 위탁받은 일(요한17,4)을 마치신 다음, 펜테코스테의 날 성신이 파견되어 오시었다. 그리하여 성신이 항구히 교회를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 신자들이 한 성신 안에서 성부께로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다(에페 2,18). 이 성신은 생명의 성신이시며, 영원한 생명을 위해 솟아오르는 샘이시다(요한 4,14; 7,38-39). 이 성신을 통하여 성부는 죄로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며 마침내는 그들의 죽은 육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시키실 것이다(로마 8,10-11). 성신은 교회와 신도들의 마음을 성전삼아 그 안에 거처하시고(고린 전3,16; 6,19), 그 안에서 기도하시며 그들이 하느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갈라 4,6; 로마 8,15-16과 26). 성신은 교회를 온전한 진리대로 인도하시고(요한 16,13), 교류(交流)와 봉사(奉仕)로 일치시키시며 교계 제도(敎階制度)와 은사(恩賜=카리스마)의 여러 가지 은혜로써 교회를 가르치고 지도하시며 당신 활동의 결실로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신다(에페 4,11-12; 1코린 전12,4; 갈라 5,22). 성신은 복음의 힘으로 교회를 젊어지게 하시며 항상 새롭게 하시어 신랑이신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완성시키신다(3). 성신과 신부(新婦)인 교회는 주 예수께 ‘오소서’하신다(묵시 22,17).

이로써 온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일치에 바탕을 두고 모인 백성”으로 나타나는 것이다(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4).

교회는 다음과 같은 기도로 성령의 은총을 구한다.

오소서 성령이여, 당신의 빛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없는 이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
 마음의 빛이시며,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흐뭇한 안식이여
 고된 일에 쉽이여, 더위에 그늘이여
 울음에 위안이여, 지복의 빛이시여
 믿는 이들의 마음을 채우소서!
 당신의 빛 없이는 아무것도 죄 아닌 것 없나니,
 더러운 것 씻으소서!
 마른 것 물주시고, 병든 것 낫게 하시고,
 굳은 것 부드럽히며,
 찬 것은 덤히시고, 굶은 것 끈게 하소서!
 당신을 믿는 자에게 풍성한 은총을 내리사,
 공을 쌓는 덕을 주어
 영원한 생명과 무궁한 복 주소서! <성령송가>

성령 운동의 역사

사도행전을 비롯한 거의 모든 서간경들은 초대 교회에 성령의 위치가 얼마나 막강 했는지를 증명해 준다. 초대 교회의 설립과 성장은 온전히 성령의 능력에 따른 것이었다.

근세 교회에 와서 이 성령에 관심을 새로이 한 사람은 이탈리아의 성령 봉헌 수녀회의 창설자 복녀「엘레니 게라」수녀이다. 이 수녀는 12통의 정성어린 편지를 교황 레오 13세께 보냈다. 그후 교황은 디비눔 일론 무누스(Divinumillud Munus)라는 회칙을 반포하시며 세계 모든 본당에 성신 강림절 전 9일 기도를 바치도록 거듭 촉구하셨다(1897년).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00년 12월 31일 밤 미국의 캔사스주 토페카에서 성서 공부를 하던 한 그룹이 성령은사를 체험하고 이를 전하므로 ‘오순절파’가 생겼다. 이를 거부하던 기성 교파도 그의 성장을 보고 1957년 이후 부터는 많은 교파가 이를 받아 들이기 시작했다. 가톨릭 역시 1959년 ‘성령의 사도’ 엘레나 수녀의 시복을 기회로 “새로운 성령 강림”을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교황 요한 23세께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동안 “오 주여! 새로운 성령 강림과도 같이 오늘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 하기를 당부 하셨다. 그리고 공의회 문헌에 성령에 관한 문구가 252번이나 나온다. 오늘날 소위 “성령 운동”이라 부르는 신심 운동의 시작은 1966년 미국 듀케인 대학의 젊은이들이 성령강림에 대한 동경을 품고 성서를 연구하였는데 그중 몇 명이 “오소서 성령 이시여”라는 성령송가를 바쳤다. 그러던 중 1967년 2월 주말 피정에서 성체조배를 하던 중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고 피정이 끝난 다음 이 체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시작되었다.

사무장채용공고

1. 영세한지 3년이상의 신자
 2. 운전면허 1종소지자
 마감일: 6월15일까지

원평천주교회
 ☎ 43-0880

벗들을 찾습니다

전북시레지오中동문회

매: 1990. 6. 21(목)
 오후 7시 30분
 곳: 익산 용안 천주교회
 연락처: 전주 77-4488

■축개원■

여왕미용실

한미백화점 양남점

■여왕미용실■

※교우저렴한 가격에 모십니다.
 ※에쁜선물 증정

김아네스
 ☎ 87-9244

도시 감각의 패션구두

브랑누아

김순희 (마카엘라)
 전주지점 (오거리)
 ☎ 6-5043

잡 관 /

돈 받고 안수한다?

우리 나라에 성령 운동이 시작된지도 어언 20여년이 다 되었다. 내가 성령 안수를 받은 지도 17년이 되었으니까.....

그간 많은 얘기, 많은 사건들에 어느 뎨 어안이 병병할 지경이다. 많은 경우 "이래선 안되는데..... 그건 아닌데" 하는 걱정에 가슴이 아프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성령의 "열매"인가 하는 것이다. 은사(방언, 치유, 해석, 예언.....등)에 관심을 기울이기 보다는 그 열매를 잘 볼 줄 알아야 한다. 성령의 대표적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친절, 인내, 온유, 절제이다. (갈라5, 22-23)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법, 분열, 미움, 시기, 질투, 불순명..... 등이 성령의 열매일 수는 없지 않는가! 심지어 돈을 받고 안수를 하고, 본당 신부 몰래 숨어 다니며 치유 행위를 하는 것이 어찌 성령의 열매라 할 수 있겠는가? 더우기 파벌을 조성하여 서로 헐뜯고 싸우면서 성령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신앙은 결코 감정이 아니다. 감정과 이성을 잘 조화시킬 수 있을 때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다. 뜨거운 감정, 어떤 체험에 열매이기 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에 끊임없는 결단을 내리기에 용감해야 한다. 그리고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온전히 나를 차지하시어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따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라고 기도하자.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나의 기쁨과 평화가 더많은 사람에게 전달 되어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 그들의 것이기도 할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교 구 소 식

1. 오현택 신부님 은경축: 일시-6월6일(수) 오전11시 무주
2. 작은 자매의 집 축성식: 일시-6월6일(수) 오후3시
3. 교구사제총회: 일시-6월7일(목) 오전10시 장소-가톨릭 센터
4. 초등부 교리교사 하계 연수회: 6월26일(화)~29일(금) 장소-송광제2야영장
5. 예비신학생 6월 모임: 6월10일 오후2시 장소-가톨릭센터 준비물-미사준비, 필기도구, 출석카드
6. 어린이를 위한 좋은 영화 상영: 제목-헨젤과 그레텔. 일시-6월9일(토) 오후5시. 장소-전주가톨릭 센터 3층 강당. 회비500원
고등학생·대학생·일반인을 위한 좋은 영화 상영: 제목:「에마는」 일시-6월11일(월) 오후 7시 장소-가톨릭센터 3층강당. 회비1,000원
7. 제6회 전주교구 M·E가족모임: 일시-1990년 6월 6일(수) 9시~5시30분 장소-전주해성중·고등학교 강당(윤호관)
8. 파티마의 성모 푸른군대 피정: 6월7일(목) 10시~4시 덕진천주교회 준비물-미사도구, 묵주, 도시락 지참
9. 가톨릭 사회복지회 월레미사: 6월4일 오전10시30분 장소-사회복지회관
10. 사랑의 씨앗 수녀회 성소피정: 6월3일 오후2시~5시 동산동 천주교회(77-4212)
11. 까리따스 수녀회 성소자 피정 안내: 매월 둘째주일 오전9시30분~5시 이번달 모임 6월10일 광주까리따스 교육관 문의전화(광주 672-6780), 전주(덕진 수녀원72-1222)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 폐지와 쓰레기는 이렇게 —

폐지와 재생가능한 쓰레기들은 한데 모으도록 합시다. 쓰레기 버리는 양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생활습관을 이웃과 함께 실천해 봅시다.

꿈란불치병상담소

중풍·관절염·디스크·신경통
박장춘(블리처드) 임혜선(에스텔)
자연식품 및 송죽알로에
(주부사원 수시 모집)
인후 2단지 금성교회 앞
☎ (사) 251-0848 (자) 82-3271

기름·연탄·가스보일러
판매·시공·상담

남양열기사

박 전 대건 안드레아
레지나
☎ 4-0006
전주시 서노송동 흥국생명터

프로페셔널 오디오

*음향기기 판매 *PA-AMP 일질
*방송 주변기기 *C·D 판매



롯데 매니아 全北代理店

전주시 김원동 1가 29-1 (구) 전신전화국 건너편
金源準 (이교보)
☎ 87-7874*7875

요심이 (878) 김병오



혼수전문점

주단·침구·모시·삼베
깨끼한복·각종이불맞춤

부인주단

김 한 중 (오 한)
황 인 재 (오니카)
전주시 전동 남문로
☎ 84-7294

삼의피아노
코아특약점

(코아백화점 3층)

김 동 옥 (마 태 오)
채 순 남 (소화대테시)

☎ 80-1309

천자문·사자소학
사군자·전 각

명륜서예한문학원

원장 선 기 정 (요셉)

☎ 82-6492

☐ 북전주지구 본당소식 ☐

*** 중앙** 사제관 77-1713 수녀원 5-1714 주임신부 황인규
사무실 77-1711 유치원 77-1712 보좌신부 한병현
사목회장 황의옥

※ 6월은 예수성심성월입니다. 받으신 능욕을 기워 갚기 위해 노력합니다. 1. 본당의 날 야외미사에 수고해주시는 사목회임원 및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축! 건진예배: 오늘 공식미사후, 성령의 복을 풍성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유아세례: 오늘 오후3시 부모님은 물론 대부분 모도 꼭 참석바랍니다. 4. 병자 방문: 6일(수) 오후2시 사무실에 미리미리 접수바랍니다. 5. 첫영성체: 6월17일예정.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6. 성체조배: 6월1일(금)부터 재개되었습니다. 많은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7. 모임: * 사목회-오늘 공식미사후. * 여성분과 위원회-5일(화), 오후2시. * 다미안회-6일(수), 오후7시30분. * 구역반장회-8일(금), 금요일미사후. * 명도회-8일(금), 오후7시30분. * 제축행례회 심의회-다음주일 공식미사후. * 오원의 마돈나 꼬미시옹-다음주일 오후2시.

☐ 지난주 봉헌금: 1,419,500원 ☐ 교무금: 1,378,000원

*** 금암** FAX 251-3850 사제관 251-1912 주임신부 왕수해
사무실 251-1911 보좌신부 251-1913 보좌신부 이사정
사목회장 정주환

※ 오늘은 성신강림 대축일
1. 사목회: 오늘 공식미사후.
2. 구역장 및 반장님회의: 차주 공식미사후.
3. 교육가족모임: 차주 공식미사후.
4. 화단조경사업 한세대도 빠짐없이 참여합니다.
5. 성모의 밤 행사에 협조해 주신 분들께 감사.
6. 용머리성당 신축기금 마련 바자회 및 찾잔나눔.
6월7일~10일, 티켓, 1,000원.
7. 금주전례: 해설-유영수 독서①라홍덕 ②최우남
봉헌-박주봉 부부 복사-권홍주, 양정용
8. 차주전례: 해설-나인구 독서①김인선 ②정화자
봉헌-오병현 부부 복사-이대용, 정희권
9. 미사안내: 새별Pr 차주-하늘의 문.

*** 덕진** 사제관 72-3389 주임신부 성태수
사무실 252-2182 보좌신부 오성기
수·유 72-1222 사목회장 김낙현

※ 축! "성모승천 꾸리아" 분리-다음 주일 공식미사 중에
1. 오십회: 공식미사후. 2. 울뜨레아 모임: 오늘 저녁미사 후.
3. 청년연합회 체육대회: 오늘 9시30분까지 집결 회비-2,000원
4. 축 "대건회" 발족: ①대상-30~40대 남자분들(본당 이노단체에도 가입하지 않았신 분 꼭 참여바랍니다). ②일시-오늘 공식미사후 지하 회합실.
5. 가리따스자모회: 5일(화) 오후2시.
6. 중고생 체육대회: 6일 해성학교에서
7. 푸른군대 피정: 7일(목) 오전10시부터.
8. 용머리 성당을 위한 2차헌금: 다음주일에(협조바랍니다)
9. 금주본당청소: 은총의 어머니Pr. -6월9일 오후2시.
☐ 지난주 봉헌금: 969,340원 ☐ 교무금: 852,000원

*** 동산** 사제관 74-4614 주임신부 소순형
사무실 76-1289 사목회장 박영철
수녀원 77-4212

※ 본당의 날과 성모의 밤 행사에 수고하여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 모임: 오늘미사후-꾸리아. 4일-빈센시오회. 8일-울뜨레아. 9일-요셉회, 동명회. 차주-안나회, 글라리아
2. 구역미사(5일): 팔복4구역
3. 나눔잔치(6일): 팔복5구역
4. 예비자안내(성탄반): 많은 인도바랍니다. (14일일교예정)
5. 금주청소: 자비의 모후Pr. 차주-평화의 모후Pr.
6. 금주전례: 해설-김진애 독서①조용기 ②인금자.
차주전례: 해설-김정숙 독서①육문용 ②진점순.
☐ 지난주 봉헌금: 408,090원 ☐ 교무금: 56,000원
☐ 수요헌금: 56,000원

*** 서신동** 사제관 4-2214 주임신부 박성팔
사무실 4-2214 사목회장 박병열

1. 성진 신축담을 기일내에 납부 해주시면 감사 하였습니다. 2. 세대별 성당외자1조석(십만원)봉헌 바랍니다. 접수-사무실
3. 본당 비품 은인을 구합니다.
4. 구역미사: 13일(수) 저녁7시30분 장소-장남성(안젤라)씨택
5. 반오일 안내: 1구-5일 오후2시. 2구-7일 오전10시. 3구-6일 오후3시. 4구-5일 오전10시. 5구-6일 오후3시. 어른갈-5일 저녁8시. 6. 부녀회 모임: 9일(토) 오전11시.

금주모임: 공식 미사후-성모회, 차주-성조회, 울뜨레아
금주청소: 평화의 모후, 차주-매괴의 모후.
금주전례: 해설-김 부 독서①선종현 ②서후남
차주전례: 해설-김 부 독서①송종희 ②김옥희
☐ 지난주 봉헌금: 407,170원 ☐ 교무금: 218,500원

*** 송천동** 사제관 74-8873 사무실 74-1004 주임신부 김태운
수녀원 4-1142 사목회장 김인철

※ 축! 성신강림 대축일
1. 사목회 임원 단합대회: 공식미사후.
2. 어린이 세례식: 2일 오후6시30분 첫영성체-3일 공식미사
3. 구역장, 반장회: 5일 오후2시.
4. 모임: 가리따스회-5일 10시 울뜨레아-7일 안나회-다음주일.
5. 주일미사 안내: 새벽6시, 9시, 10시30분, 저녁8시-10일부터
6. 초경 강연회: 4일 20시 "청소녀와 부모의 역할" 한상갑
7. 매월 둘째주일은 구역-반 형제회: 1세대 한분씩 참여바랍니다.
8. 복사기 은인회 감사 드립니다. 9. 야외미사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0. 교무금 밀리지 않도록 월납 바랍니다.
11. 금주본당청소: 5구역 9일 오전10시30분.
☐ 지난주 봉헌금: 563,940원 ☐ 교무금: 627,000원

*** 숲정이** 사제관 76-1320 사무실 252-7366 주임신부 김동준
수녀원 252-9567 사목회장 김경주

1. 성신강림대축일, 첫영성체(공식미사중) 모임-성모회, 푸른숲.
2. 사목회: 5일(화) 오후8시.
3. 구역모임: 5~7일 * 숲머리 참조.
4. 초등부 교사 엠마우스: 6일
5. 북전주지구 중고등부 체육대회: 6일(해성학교)
6. 초중고 고백성사: 9일(토) 후5시30분
7. 다음주일: 울뜨레아
8. 금주전례: ①정규집, 고행열. ②김충철, 김영해
9. 차주전례: ①황현도, 김귀선 ②박철순, 고순자.
☐ 지난주 봉헌금: 750,380원 ☐ 교무금: 608,200원
감사헌금: 서순석(도비아)-40만원
요가팀: 앞바당 부지매입기금 신일-36만원

*** 인후동** 사제관 86-8876 수녀원 86-8875 주임신부 서용복
사무실 86-5022 사목회장 정수일

1. 첫영성체: 6일 오후4시.
2. 울뜨레아: 5일 저녁미사후.
3. 구역장모임: 7일 어머니미사후.
4. 성당에서 의복을 단정히하세요.
5. 유아세례: 10일 후7시30분 7시까지 사무실에 신청하세요.
6.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두신 자모님께서서 자모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7. 중·고생은 일요일 오전8시 학생미사에 국민학생은 오후3시교리와 4시미사에 꼭 참석하세요.
8. 성모의 밤 행사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9. 축 결혼: 12시 신랑-김성수(사도요한), 신부-문영숙
☐ 지난주 봉헌금: 816,000원 감사합니다.

*** 호성동** 사제관 78-0075 주임신부 정양현
사무실 78-1140 사목회장 박대규

※ 오늘은 성신강림 대축일입니다. 오늘부터 삼중기도는 일반 삼중기도로
1. 성모의 밤 행사에 수고해주시는 분들, 특히 본도회 여러분들에게 감사. 2. 향나무 20그루를 회사하고, 심어준 임세시리아 지매께 감사. 3. 사목회: 오늘 공식미사후.
4. 구역장 릴레이: 금주 목요일 어머니미사후.
5. 본도회, 제대회: 다음주 공식미사후.
6. 울뜨레아: 다음주 수요일 저녁미사후.
7. 지모회: 다음주 목요일 어머니미사후. 8. 6월은 예수성심 성월입니다. 매일미사전에 예수성심성월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9. 성령세미나: 6월18일~23일, 저녁7시30분. 10. 금주 목요일 예비자교리는 수녀님의 사정에 의해 금요일에 하였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548,960원 ☐ 교무금: 544,000원